

# kiri Weekly

2015.2.9 제320호

## 포커스

2014년 보험산업 회고(Ⅲ): 수익성

## 글로벌 이슈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 결정  
보험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가능성

## 금융시장 주요지표



# 2014년 보험산업 회고(Ⅲ): 수익성

조영현 연구위원

## 요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보험산업의 수익성이 2014년 들어 반등하였음. 이는 사업비율 개선에 의해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되었고, 투자영업비용 절감에 의해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금리 하락 및 재무건전성 강화로 인해 이러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기 쉽지 않은 환경임.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투자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투자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험영업 측면에서 생명보험회사는 비용절감을 통하여 사업비율을 더욱 개선시키고, 보장성 보험의 언더라이팅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보험금지급률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손해보험회사는 장기손해보험의 손해를 관리할 강화함으로써 보험영업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보험회사는 향후 IFRS 4 Phase 2 시행에 대비하여 장기적 수익성이 높은 상품의 비중을 확대시킴으로써 이익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보험산업의 수익성이 2014년에 완만하게 개선됨.

- 생명보험의 2014년 3/4분기까지 영업이익률은 3.53%로서 FY2013(CY2013 2/4~4/4) 영업이익률 2.79%에 비해 0.74%p 상승함.
- 손해보험의 2014년 3/4분기까지 영업이익률도 FY2013에 비해 0.66%p 상승한 2.85%를 기록함.
- 2014년 3/4분기까지 보험산업의 분기 평균 ROE는 2.13%로서 2013년 3/4분기까지의 분기 평균 ROE 1.83%에 비해 0.3%p 높음.
  - 2014년 3/4분기까지 보험산업의 분기 평균 ROE는 FY2013의 분기 평균 ROE 1.63%와 비교 하더라도 0.5%p 높음.

〈표 1〉 보험산업 수익성

구분	FY 2009	FY 2010	FY 2011	FY 2012	2013 <sup>1)</sup>				2014			
					1/4	2/4	3/4	4/4	1/4	2/4	3/4	
ROE	생명보험	9.9	12.4	8.4	6.6	1.4	1.6	1.8	0.7	1.9	2.0	2.0
	손해보험	13.9	11.3	16.3	11.6	1.9	2.9	2.4	1.5	2.6	3.0	2.2
	합계	10.9	12.1	10.2	7.8	1.5	2.0	2.0	0.9	2.1	2.3	2.0
영업 이익률 <sup>2)</sup>	생명보험	-	5.14	4.27	2.85	-	2.8	2.96	<b>2.79</b>	3.15	3.38	<b>3.53</b>
	손해보험	-	3.84	3.47	2.74	-	2.29	2.29	<b>2.19</b>	2.31	2.86	<b>2.85</b>

주: 1) 2013년은 2014년과의 비교를 위해 회계연도(4월~12월)가 아닌 역년(1월~12월)을 이용함.

2) 분기별 영업이익률은 회계연도 개시 후 각 분기 말까지 누적하여 계산된 수치임.

자료: 보험연구원, 『보험동향』 및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이는 FY2013 대비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이 모두 개선되었기 때문인데, 생명보험산업은 보험영업이익 증가, 손해보험산업은 투자영업이익 증가가 상대적으로 컸음.

- 생명보험산업은 보험영업이익 증가율(10.1%)이 투자영업이익 증가율(6.4%)에 비해 3.7%p 높았음.
- 반면, 손해보험산업은 투자영업이익 증가율(12.3%)이 보험영업이익 증가율(11.3%)에 비해 1%p 높았음.

〈표 2〉 보험산업 영업이익

(단위: 십억 원, %)

구분	FY2013	2014. 1~2014. 9	증가액	증가율	
생보	보험손익	12,812	14,101	1,289	10.1
	투자손익	15,076	16,037	961	6.4
	책임준비금전입액	27,461	28,987	1,526	5.6
	영업이익	427	1,151	724	169.7
손보	보험영업이익	-1,578	-1,399	179	11.3
	투자영업이익	3,752	4,214	463	12.3
	영업이익	2,174	2,815	641	29.5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된 이유를 보험업권별로 살펴보면,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주로 사업비율 개선에 의해 보험영업수지가 증가되었으며, 종목별로는 무배당 저축성 보험의 보험영업수지 개선이 두드러짐.

- 현재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배당 보험은 사업비율(22.1%→20.4%)과 보험금지급률(51.2%→50.5%)이 모두 개선되었음.

- 보험금지급률의 경우 최근 판매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보장성 보험의 개선(50.2%→48.8%)이 두드러짐.
- 무배당 저축성 보험의 보험수지차 개선은 단순히 수입보험료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율 절감(13.9%→11.8%)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음.

〈표 3〉 생명보험산업 보험영업

(단위: 십억 원, %)

구분		보험수지차			사업비율			보험금지급률		
		FY2013	2014. 1~9	증감	FY2013	2014. 1~9	증감	FY2013	2014. 1~9	증감
유배당	보장성	-1,365	-1,380	-15	52.0	63.6	11.5	610.2	759.6	149.3
	저축성	1,733	947	-786	10.0	9.7	-0.3	61.0	74.0	13.0
	계	368	-433	-801	11.6	11.4	-0.3	82.5	95.9	13.4
무배당	보장성	4,689	5,322	633	30.4	29.9	-0.5	50.2	48.8	-1.3
	저축성	8,272	9,827	1,554	13.9	11.8	-2.1	52.2	52.1	-0.1
	계	12,961	15,149	2,188	22.1	20.4	-1.6	51.2	50.5	-0.7
합계		13,329	14,716	1,387	20.9	19.5	-1.4	54.8	55.2	0.4

주: FY2013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보험수지차는 수입보험료-지급보험금-실제사업비, 사업비율은 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보험금지급률은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임.  
 자료: INSIS; 보험개발원.

■ 손해보험산업도 사업비율 개선이 보험영업이익 제고를 이끌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경과손해율은 FY2013에 비해 0.16%p 악화되었으나, 순사업비율이 FY2013에 비해 0.81%p 개선됨으로써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됨.

〈표 4〉 손해보험산업 합산비율

(단위: 십억 원, %, %p)

구분	FY2013	2014. 1~2014. 9	증감
경과손해율	84.05	84.21	0.16
발생손해액	41,593	42,871	1278
경과보험료	49,484	50,907	1423
순사업비율	19.13	18.32	-0.81
순사업비	9,485	9,387	-98
보유보험료	49,574	51,248	1674
합산비율	103.19	102.53	-0.66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투자영업이익 개선의 주요인은 생·손보산업 모두 투자영업비용 감소로 볼 수 있음.

- 운용자산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 하락으로 투자영업수익 증가는 미미하였으나 투자영업비용 감소로 투자영업이익 규모가 크게 증가함.
- 보험산업은 FY2013 대비 투자영업비용이 1조 3,020억 원 감소하여, 투자영업이익 규모가 1조 4,230억 원 증가함.
  - 투자영업비용은 재산관리비, 자산처분손실, 이자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용관리와 투자리스크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음.

〈표 5〉 보험산업 투자영업수지

(단위: 십억 원)

구분		FY2013	2014. 1~2014. 9	증감
생보	수익	18,473	18,589	116
	비용	3,397	2,552	-845
	이익	15,076	16,037	961
손보	수익	5,276	5,281	5
	비용	1,524	1,067	-457
	이익	3,752	4,214	462
전체	수익	23,749	23,870	121
	비용	4,921	3,619	-1,302
	이익	18,828	20,251	1,423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한편, 2014년 9월까지 대규모 일회성 순이익이 발생하여 보험산업 전체 이익을 증가시켰으나, 삼성생명을 제외한 대다수 회사는 오히려 일회성 손손실이 발생하였음.

-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주요 상장보험회사의 일회성 수익은 7,373억 원, 일회성 비용은 4,955억 원으로 일회성 순이익은 2,418억 원 규모로 추산됨.<sup>1)</sup>
  - 주요 일회성 수익은 유가증권 처분이익, 공정위 과징금 환입, 계열사 지분 처분익 등이며, 주요 일회성 비용은 구조조정 비용, 고액사고 등임.
  - 이러한 일회성 순이익의 규모는 FY2013대비 보험산업 영업이익 증가분 1조 3,650억 원의 17.7%에 해당하는 규모<sup>2)</sup>

1) 장효선·신동오(2014, 2015), 삼성증권 보험산업 분석보고서 참조.

2) 삼성생명 이외의 회사 대부분이 일회성 손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비상장보험회사까지 포함할 경우 일회성 순이익 규모는 줄어

- 삼성생명의 경우 2/4분기에 삼성물산 주식처분익 4,768억 원이 발생<sup>3)</sup>하여 대규모 일회성 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적지 않은 규모의 일회성 손손실이 발생하였음.
  - 삼성생명을 제외할 경우 주요 상장보험회사의 일회성 손손실은 2,122억 원으로 추산됨.
- 다만, 2014년도 4/4분기에는 대규모 일회성 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어, 동분기 이익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임.
  - 2014년도 4/4분기 주요 상장보험회사의 일회성 수익은 2,603억 원, 일회성 비용은 5,622억 원으로 일회성 손손실은 3,019억 원 규모로 추산됨.<sup>4)</sup>
    - 변액보증준비금 증가, IBNR 추가적립, 구조조정 비용 등 일회성 비용이 대규모로 발생함.
- 향후 투자환경 악화와 재무건전성 강화로 인하여 수익성 개선 추이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장기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투자수익 제고가 어려운 환경
    - 국고채 10년 금리: 3.086%(2014년 8월 평균) → 2.415%(2014년 1월 평균)
    - 금리 하락시 매도가능증권을 매도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증가시킬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자본이 감소하고 재투자시 이자수익이 낮아짐.
  -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으로 수익성 지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계획된 정량평가 강화와 보험부채 시가평가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자본을 확충할 필요성이 높음.
    - 후순위채를 발행할 경우 이자비용 발생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며, 유상증자를 할 경우 ROE가 하락함.
  - 2014년에 실시한 대규모 구조조정의 효과는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나 위의 두 가지 악영향에 비해 작을 것으로 판단됨.
- 수익성 악화 환경에 대비하여 보험회사는 투자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투자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2014년도의 투자영업이익 개선도 투자비용(재산관리비, 자산처분손실, 이자비용 등) 절감을 통해 이루어졌음.

들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일회성 순이익이 보험산업 영업이익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보다는 낮을 것으로 판단됨.

3)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10. 31) 참조.

4) 장효선·신동오(2014, 2015) 참조.

■ 또한 보험영업 측면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사업비율과 보험금지급률을 더욱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사업비율이 2013년에 비해 낮아졌지만, 2013년 이전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상태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업비율: 9.76%(FY2011) → 8.22%(FY2012) → 10.46%(FY2013) → 10.07%(2014. 9)
  - 특히, 최근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는 보장성 보험의 사업비율을 더욱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2014년 9월 기준 보험금지급률은 55.2%로써 FY2013(54.8%)에 비해 높아졌는데, 이는 과거 판매한 유배당 보험의 보험금지급률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표 3〉 참조).
  - 효력상실해약률은 2014년 9월 기준 6.94%로써 FY2013(7.16%)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므로, 해약 증가에 의해 보험금지급률이 높아진 것은 아님.
  - 최근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배당 보험은 보험금지급률이 낮아지고 있음.
- 보험금지급률의 개선을 위해서는 과거 판매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지급 관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최근 판매비중을 높이고 있는 보장성 보험의 언더라이팅 능력도 더욱 제고시켜야 함.

〈그림 1〉 생보사 사업비율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2〉 생보사 보장성 초회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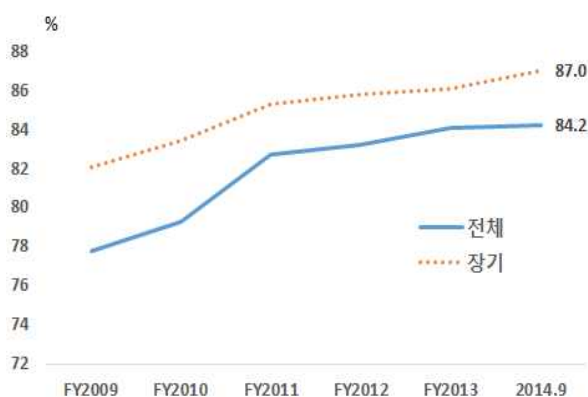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손해보험회사는 장기손해보험 손해율을 개선시킴으로써 보험영업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9월 기준 손해보험회사의 경과손해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84.2%임.
  - 비중이 높은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임.
  - 자동차와 일반손해보험의 손해율은 2014년 들어 소폭 개선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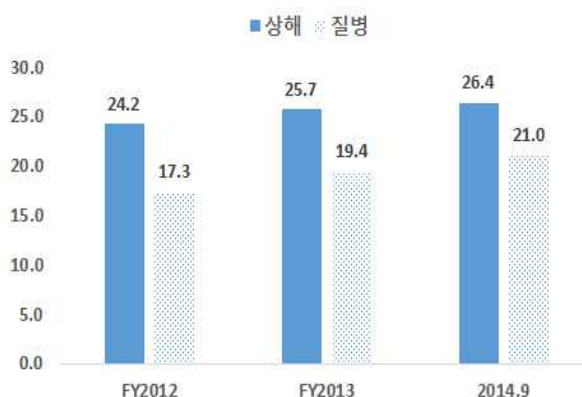
- 특히, 중소형사의 장기보험 위험손해율은 100%를 상회하는 수준<sup>5)</sup>으로 언더라이팅 강화가 필수적인 상황
- 최근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장기 상해, 질병 보험의 손해율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개선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3〉 손보사 경과손해율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4〉 손보사 장기 상해, 질병 보험 비중



주: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 한편, 보험회사는 향후 IFRS 4 Phase 2 시행에 대비하여 장기적 수익성이 높은 상품의 비중을 늘림으로써 이익의 질을 제고시켜야 함.

- 본고는 기존 회계기준 수익성 지표를 활용하였으므로 보험회사의 단기적인 수익성만을 분석한 점이 한계임.
  -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계약 초기에 손익이 편중되어 인식되므로 재무제표에 장기적 수익성이 드러나지 못함.
- IFRS 4 Phase 2가 시행되면 손익이 보험기간동안 고르게 인식되므로 보험기간 전체의 수익성이 높은 상품의 비중을 확대해야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 있음. **kiri**

5) 조정삼·안경희(2014. 12), 손해보험, KIS Industry Outlook 참조.